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새벽 6:30 저녁 19:00	(목)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사무실 문의	

2020년 본당 사목 목표 : 1.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 "선교사가 됩시다." 2.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 알 림

- 오늘은 제53회 평신도 주일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구장님 영명 축일(11/30) 영적예물 봉헌 안내
 - 기도내용 : ① 미사 ② 묵주기도 ③ 주교를 위한기도 ④ 화살기도 ⑤ 희생
 - 제출기간 : 11/17(화)까지 / 성전입구 봉헌함
- 11월11일(수) 저녁 7시 미사는 본당 임원들을 위한 미사로 진행합니다.
- 유아 세례, 태종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약)

• 고해소 사용

- 고해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짧게 본인의 고해만 합니다.

•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안내

- 성당 입구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 바코드를 무인 단말기에 접촉(터치)하여 본인 스스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본당 신자는 사무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 성당 정문을 이용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후,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타본당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모임 *

- 대상자 : 수험생 자녀가 있는 보호자
- 시 간 : 11월 3일(화) ~ 12월 2일(수)
평일 19:40~20:40, 주말 17시~18시
- 장 소 : 소성전

* 불우이웃 돕기 기금 마련 작은 바자회 *

- 기 간 : 11월 7일(토) ~ 8일(주일)
11월14일(토) ~ 15일(주일)

● 노인 분과

- 베타니아 노인정 운영재개
 - 운영시간 13:00 ~ 17:00, 858-8548(회장 김요안나)
 - 자비의 기도 15:00, 식사제공은 없습니다.

● 2021학년도 꿀벌유치원 신입생 모집

- 대 상 : 2016.1.1. ~ 2017.12.31. 출생유아
- 접수방법 :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 원서접수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 참조
- 일반전형 접수 : 11월18일(수) ~ 20일(금)

● 다음주일 (11/15)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24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0월28일 ~ 11월 3일)

• 교 무 금		7,925,000 원
• 주일헌금		3,878,000 원
• 감사헌금	문일상20만원 정송영 5만원 김시아 5천원 심점순 3만원 정애자 5만원 김수자10만원 이승문 5만원 마점순30만원 김시아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11/ 8	구민서	조흥환 이용남 도현만 최상림	안상록 정연희
11/15	최경희	최영만 신종구 김영균 김진수	김덕영 한희숙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11/ 8	박용환	최석준	장인홍 최승일	김광수	오광운
11/15	장인홍	박용환	최창열 김광수	박승환	이성일

● 후보 7면

- 지역별 주일 미사 참례 시간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지역별 주일 미사 참례 시간

구 분	새벽미사 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11월 8일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1월15일	4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11월22일	3지역	4지역	1지역	2지역
11월29일	2지역	3지역	4지역	1지역

- 구역 외 신자분들은 12시, 저녁 7시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7. 하느님은 왜 인간에게 악을 행할 가능성을 주셨나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순수한 자유가 주어졌다면 거기에는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자유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8. 인간이 하느님을 배반했을 때, 하느님은 인간을 홀로 놔두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1코린 13,8 참조). 그분은 우리를 찾아 나서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우리에게 손수 찾아오시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려 하십니다.

9. 하느님은 어떻게 당신을 찾게 하시나요?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거나 계시하심으로써 당신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하느님을 인식하고, 관상을 통하여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정확히 어떻게 존재하시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우리의 이성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의 관념 또는 책이나 정치적 체계로 당신 자신을 알려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심으로써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십니다.

10. 하느님은 예수님 이전에 어떻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나요?

하느님은 당신의 존재를 인간의 이성 인식에 가려진 채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당신의 내면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늘 예언자들을 부르시어 당신의 이름으로 행동하게 하셨습니다.